

“KIA에 우승하러 왔다…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맷 윌리엄스 감독 공식 취임

선수들 열정 있고 운동 신경 좋아 공격적으로 다양한 시도 가능
스프링캠프 성적따라 라인업 결정…새 외국인 선수 평가 단계

“야구에서 완벽은 불가능하지만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KIA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5일 기아차 동차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V12’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이화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구단 임직원과 최형우를 비롯한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화원 대표이사는 9번이 새겨진 유니폼과 모자를 선물하며 윌리엄스 감독의 새 출발을 반겼고, 최형우는 선수단 대표로 꽃다발을 전달하며 취임을 축하했다.

“KIA 사령탑에 오를 수 있게 돼서 영광이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며 취임사를 시작한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승리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야구는 정신력이 중요하다. 정신력을 하나의 톨로 이용해야 한다. 공을 치고 던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배를 탄 코치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승리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사람들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코치들의 열정에 감사하다. 코칭스태프도 겨울에 승리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구에서 완벽은 불가능하지만 하루하루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런 자세로 임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KIA에 우승을 하기 위해 왔다. 함께 땀 흘리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고 우승을 이야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3주 동안 광주·함평에 있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선수들과 코치들의 열정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팬들도 열성적이라고 모두 친절하게 해주셨다.

-훈련 결과와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팀을 평가하는지

▲전 선수를 살펴보니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야기하면 선수들이 열정이 있고 운동 신경이 좋다. 공격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팀이라고 느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수들도 연습 경기할 때 스트라이크 잘 던지는 선수 많았고, 견제 능력이 좋았다.

-외국인 선수와 내부 FA에 관해 구단과 어느 정도

교감에 있는지

▲외국인 선수들을 평가하는 단계다. 나와 수석 코치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많은 선수를 보고 알고 있다. 미국은 물론 남미에서 올 수 있는 선수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FA)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KIA 타이거즈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

▲많은 이들이 명문 구단이라고 말을 해줬다. 투수력, 힘도 발전해야 하지만 모든 영역에 걸쳐서 발전하는 게 지도자로서 목표다.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면 하루하루 승리 확률이 높아지고, 가을 야구에 진출하고 우승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정신력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공격적인 마음가짐이 우선이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승리를 위해서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팀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려고 한다. 그래야 팀이 강해질 수 있다.

-라인업을 작성할 때, 주전 선수를 선발할 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유격수와 중견수의 특성은 다르다. 이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적 능력보다 함께 실력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겠다. 스프링캠프를 통해서 면밀히 평가하고, 주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우승을 목표로 이야기했는데 우승에 필요한 부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연봉이 낮고 젊은 선수가 많은 오클랜드에 있었는데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른 팀에 뒤지지 않는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는 공평하다.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빨리 배운다. 어느 팀이든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이길 수 있다. 탄탄한 기본기로 스스로 지지 않아야 한다.

-큰 방향에서 하고 싶은 야구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에게 말한 것처럼 지도자는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완벽한 자리에 놓아야 한다. 좋은 투수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스스로 지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수비와 공격력에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신임 감독 맷 윌리엄스가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꽃돌이 최형우 “치홍이·선빈이 잡아주세요”

“대표님 치홍이와 선빈이 잡아주세요.”

KIA 타이거즈는 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2020 시즌을 연다. 많은 이들의 기대가 쏠린 새 출발, 팀을 대표하는 타자 최형우에게도 기대가 되는 시즌이다.

최형우는 5일 열린 맷 윌리엄스 감독 취임식에 참석해 선수단 대표로 새 사령탑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최형우는 “외국인 감독을 경험해 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한국인 감독님보다는 첫 대면이 쉽지는 않은데 기대감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푸근하셔서 다가가기 어

렵지 않다. 뭔가 대화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다”고 웃었다.

줄곧 새 시즌을 기다리는 최형우는 “출발선”에서 남다른 준비를 다짐했다.

최형우는 “후배들이 뭔가 새로운 출발점,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나 역시, 베테랑들도 다들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도 내년에 못 하면 바로 안 좋게 된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뭔가 재미있을 것 같다. 어린 선수는 물론 나이 있는 선수들도 자극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윌리엄스 감독이 언급한 ‘정신력’, ‘공격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최형우의 마음에

와닿았다.

최형우는 “감독님께서 시합 들어가기 전에 공격적인 마음가짐으로 정신력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선을 상징하는 ‘4번’ 자리에 대해서는 “4번은 원래부터 크게 집착하지는 않았다. 사실 내가 4번을 안치는 게 더 좋은 그림이다. 그러면 누군가 나보다 더 괜찮은 후배가 나왔다는 것이다”며 후배들의 성장을 기대했다.

FA 시장에 나온 두 후배 김선빈과 안치홍에 대한 애뜻한 마음도 밝혔다.

“두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에 최형우는 “구단 대표님께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



류현진, 한국인 첫 사이영상 후보

최종 3인에 … 다르빗슈 아시아 선수 최다 득표 경신 주목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이 아시아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사에 한 획을 그었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발표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오르면서 한국 출신 최초의 사이영상 득표자가 됐다. 아울러 아시아 출신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과 최다 포인트 획득에 도전한다.

사이영상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설적인 투수, 텐트 트루 사이영의 이름을 따 1956년 제정됐다.

사이영상은 정규시즌이 끝난 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기자 3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아시아 출신 선수가 이 상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도전은 꾸준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노모 히데오(일본)가 1995년과 1996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9점과 5점을 받아 2년 연속 전체 4위에 올랐고, 타이완 출신 왕젠밍(당시 뉴욕 양키스)은 2006년 51점으로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전체 2위에 올랐다.

2008년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뛴 일본 출신 마쓰자카 다이세이가 아메리칸리그 사

이영상 투표에서 10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사이영상에 도전했던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는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이던 2013년 93점으로 아메리칸리그 2위를 차지했다.

이와쿠마 하사시(당시 시애틀)는 73점으로 다르빗슈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사이영상은 등수별 포인트를 차등 지급해 순위를 가리는데 아시아 선수 중 1위 표를 받은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선수 중에선 5위 표를 받은 선수도 없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2000년 18승 10패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지만, 당시 랜디 존슨, 톰 글래빈, 그레그 매덕스 등 전설적인 투수들에게 밀리면서 득표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최종 후보 3인에 들면서 한국 선수 최초로 사이영상 득표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아울러 2013년 다르빗슈가 기록했던 아시아 선수 사이영상 최다 득표 경신에도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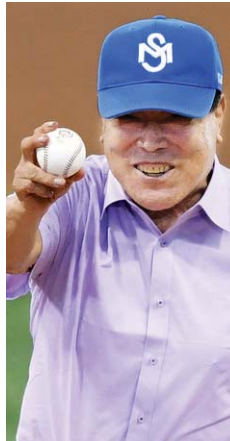
사이영상 투표는 지난달 초 이뤄졌으며, 최종 발표는 14일에 한다.

/연합뉴스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프리미어12 서울 예선 시구

‘4할 타자’ 백인천(사진) 전 감독이 2019 WBSC 프리미어12 서울 예선라운드 개막을 알린다.



세계 최고 권위의 야구 국가대항전인 2019 WBSC 프리미어12 개막 전 행사가 5일 확정됐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WBSC 프리미어12 예선라운드 개막전은 6일 오후 6시 35분 고척 스카이돔에서 오프닝 퍼포먼스로 그 서막을 연다.

백인천 전 감독은 MBC 청룡, 삼미 슈퍼스타즈 등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1982년에는 감독 겸 선수로 뛰며 KBO 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4할 타율(0.412)을 기록했고, 1990년 감독으로 LG 트윈스의 창단 첫 우승을 일궈내는 등 대한민국 야구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한편 2019 WBSC 프리미어12 서울 예선 라운드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리는 대한민국과 호주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8일까지 3일간 이어지며, 대한민국, 쿠바, 호주, 캐나다 등 C조에 속한 4개국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김여울 기자 wool@